

폴란드(Republic of Poland)

(2004. 3)

국별조사실

面積	31.2만 km ²	貨幣單位	Zloty(Zl)
人口(2003)	38.2백만 명	환율('03년)	Zl 3.74/USD
GDP(2003)	2,069억 달러	會計年度	1.1~12.31
1人當GDP(2003)	5,415달러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제성장률	4.0	1.0	1.4	3.7	4.3
재정수지/GDP	0.3	-4.3	-5.1	-4.6	-5.4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5.5	1.9	0.7	2.0

□ 경기회복 가시화

- 1999~2000년중 정부의 강력한 긴축통화정책 추진과 EU의 경기부진으로 내수 및 투자가 위축되어 2001년과 2002년은 1%대의 저성장애 그침.
- 2003년에는 산업생산성 향상, 수출증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정부의 연초 성장 전망 3.5%를 상회하는 3.7%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장회복세는 EU 회원국에 편입되는 2004년 이후 더욱 강화되어 2005년까지 연간 4%대의 실질 GDP 성장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안정 지속

-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축통화 정책의 추진으로 2002년 1.9%, 2003년에는 체제전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0.7%를 보임.
- 즐로티화의 약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민간소비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2003년보다 높은 상태이기는 하나 강력한 정도는 아니어서 2004년중 물가상승률은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긴축통화정책 유지

- 재정수지 적자는 2001년 GDP의 4.3%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 4%~5%대를 유지하고 있음.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가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수지 적자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다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공공부채의 법적 제한선인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현 정부는 2004~2005년 중에도 재정적자 축소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통화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2003년중 계획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정부와 실업률감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통화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회와의 갈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국제경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 상 수 지	-100	-54	-50	-36	-39
경 상 수 지/G D P	-6.1	-2.9	-2.7	-1.7	-1.7
상 품 수 지	-123	-76	-73	-61	-68
수 출	359	417	467	576	699
수 입	482	493	540	637	767
외 환 보 유 액	263	251	280	326	n.a.
총 외 채 잔 액	633	623	699	832	1,000
총 외 채 잔 액/G D P	40.5	35.7	37.6	42.1	42.5
D. S. R.	20.8	28.0	19.3	19.7	16.3
F D I 유 입 액	93	58	39	38	48

□ 경상수지 적자 감소추세

-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02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EU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장기간 진행된 내수부진의 여파로 소비재 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쳐 2003년에는 GDP 대비 1.7%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4~2005년에도 이어져 2% 이내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DI 하락추세

- 체제전환 이후 동구권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국이었던 폴란드는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을 FDI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FDI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경상적자 확대에 의한 경제불안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해왔음.
- 2001년 이후 세계경기 하강, 대형 민영화 사업의 소극적 추진 등으로 FDI 유입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상적자를 커버하는 수준의 유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정치 · 사회동향

□ 중도좌파 SLD 집권

- 2001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밀러(L. Miller)가 이끄는 민주좌파연합(SLD)을 중심으로 3개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출범한 현 정부는 농민당(PSL)이 EU가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농가보조금 문제로 2003년 3월 연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하원 의석수가 과반수 이하로 하락함.
- 2004년 5월 EU 정식 가입을 앞둔 정부로서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국민복지부문에서의 공공지출을 제한하는 Hausner Package 승인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기총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함으로서 의회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조기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비교적 안정된 사회 유지

- 18~20%로 추정되는 높은 실업률이 사회불안 요인일 수 있으나, 완만하게나마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국내의 종교, 민족 갈등의 여지나 주변국과의 전쟁가능성도 거의 없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임.

□ EU 가입 결정

- 2002년말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가입국으로 선언되고, 2003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가입이 통과되어 2004년 5월부터 EU 정식 회원국 자격을 취득할 예정임.
- 그러나 아직 주요 과제로 국민의 자유 이동, 자격 상호인정, 농업보조금 통제, 농장 관리에 관한 EU와의 조정, 농산 식품 위생 강화, 가축·작물 질병 통제 등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 미국과의 관계 개선

- 이라크전 당시 미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미국과는 관계가 개선된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과는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됨.

- 그 밖에 주변국가와의 분쟁, 물리적 충돌가능성은 거의 없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2등급(2003. 1) → 2등급(2004. 1)
- I.C.R.G: 44/140(2003. 3) → 49/140(2004. 1)
- I. I: 37/151(2003. 3) → 39/172(2003. 9)
- Euromoney: 41/185(2003. 3) → 45/185(2003. 9)

□ 양호한 국제신인도 유지

- Moody's : A2(2004. 2)
- S&P : BBB+ (2004. 3)

□ 채무 리스케줄링

- 파리클럽(1991년)과 런던클럽(1994년)으로부터 대규모 리스케줄링과 채무 감면을 받은 후, 국제신인도 제고와 자발적인 해외조달 능력 확대의 효과를 거두었음. 외채규모는 GDP의 약 30~40% 수준이며, DSR은 20%대 이하로,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동국의 자본유치 능력을 감안할 때 대외채무 상환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요약 및 전망

□ 물가안정 및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 2003년은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의 상승, 소비자물가 안정,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등 국내경기 및 대외거래에 있어 회복세로 전환이 가시화 된 한 해였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200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동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적이 강력한 경제회복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공공부채의 법적 제한선인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2004~2005년 중에도 긴축통화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공기업매각을 통한 FDI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분야의 갈등 존재

- 2003년 3월 농민당이 집권연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하원 의석수가 과반수 이하로 하락한 밀러(L.Miller)정부는 정책추진력이 약화되어 있음.
- 특히,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정부와 실업률감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통화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회와의 갈등이 최근 심화되는 등 대내 정치환경은 다소 긴장되어 있으나, 국제관계 및 사회환경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국가임.

□ 양호한 국제신인도 유지

- 동국은 주요국제기구 및 신용도 평가기관으로부터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자금 조달 및 대외채무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국교수립 : 1989년 11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6일)
- 주요협정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1990),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상 1992),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이상 1993)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2001	2002	2003	주요 품목
수 출	336,568	349,019	382,254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수 입	45,571	47,111	73,548	철강, 화학제품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해외직접투자현황(2004년 2월말 현재) : 49건, 513,775천 달러